

#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젊은 지역예술가와 협업하는 여름 예술축제	피렌체
산업·경제	3	지역경제 기반 사회경제적기업 지원 프로젝트	바르셀로나
사회·복지	5	16~25세 청년 200여 명에 관광지 도우미 일자리 제공	파리
환경·안전	7	담배꽂초, 퇴비·플라스틱 자재로 재활용	멜버른
도시계획·주택	9	역사적 고건축물, 커뮤니티 레스토랑으로 재탄생	런던
	11	질 좋은 주택 건설 등 차세대 주택정책 전략 발표	버밍엄

## 젊은 지역예술가와 협업하는 여름 예술축제

외곽지역 150곳에서 6개월간 102개 문화예술행사 개최

이탈리아 피렌체시 / 문화·관광

-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관광증심지에 비해 소외된 외곽지역 150곳에서 젊은 지역예술가와 협업해 102개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여름 예술축제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여는 중
- 배경
  - 관광객보다 전체 시민을 위하는 문화예술행사의 필요성 제기
    - 피렌체는 세계적 관광도시답게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열리지만, 관광객을 위해 역사지구(Centro Storico)와 유명예술가를 중심으로 기획
    -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곽지역에도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행사 필요
    - 유명하지 않은 젊은 지역예술가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
    -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행사를 추구
  - 2012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여름 예술축제를 외곽지역과 젊은 지역예술가를 중심으로 기획
    - 문화적 발전의 도심 집약화에서 벗어나 주변부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
    - 관광을 위한 도시만이 아닌, 모든 시민을 위하는 도시 정체성 구축
- 개요
  - 외곽지역 150곳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102개의 문화예술행사 개최
    - 피렌체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가와 적극 협업해 영화, 음악, 댄스, 설치 미술,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개최
  - ‘새로운 발견’이라는 주제 아래 ‘주변의’, ‘현대의’, ‘숨겨진’이라는 표어를 선정
    -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역, 예술가, 문화예술기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
  - 피렌체시의 공식 투자 금액만 54만 5천 유로(7억 1천만 원)
    - 스폰서 등 외부투자를 제외한 수치로, 축제 첫해인 2013년의 27만 3천 유로(3억 6천만 원, 31개 행사)에 견줘 대폭 상승

- 대표적 문화예술행사
  - 캄포 디 마르테(Campo di Marte)역 영화 축제
    - 규모는 크지만 외곽지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기차역에서 여름밤 야외 영화제를 개최
  - 아르노(Arno)강(江)의 버려진 강둑을 해변으로 재탄생
    -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 1년 내내 버려진 공간인 피렌체 아르노강 남쪽의 강둑에 잔디를 깔고 백사장을 만들어 인공 ‘피렌체 해변’을 창조
    - 백사장에서 무료로 요가와 아프리카 댄스 수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나라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문화 행사를 개최
  - 우피치(Uffizi) 미술관 광장에서 독립영화 상영
    - 평소 전시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세계적 미술관이지만, 이번 축제를 위해 광장에서 지역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가
- 기대 성과
  - 피렌체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창조
    - 지역 내의 젊은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 등과 협업함으로써 피렌체가 관광객만의 도시가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임을 강조
  - 균형적 문화발전이라는 오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
    -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외곽지역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

<http://estatefiorentina.it/>

<http://estatefiorentina.it/sei-mesi-150-spazi-centinaia-di-iniziative/>

<http://www.gonews.it/2017/02/28/estate-fiorentina-2017-tra-giovani-parchi-e-periferie/>

<http://estatefiorentina.it/2017/07/21/arena-marte-cinema-estate-2017/>

김예름 통신원, yereumkim@gmail.com

## 산업·경제

### 지역경제 기반 사회경제적기업 지원 프로젝트

스페인 바르셀로나市 / 산업·경제

-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 중이며, 기존 사회경제적기업의 활성화를 돕는 한편 관련 기업의 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연내에 건립할 예정
- 개요
  - 목적: 지역사회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사회경제적 모델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과 창업을 지원
  - 대상: 사회경제적기업을 추구하는 총 4,718개의 기업체(제3섹터 2,400개, 노동조합 1,197개, 협동조합 861개, 지역 경제를 바탕으로 한 창업팀 260개)
  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기업 ‘바르셀로나 악티바’(Barcelona Activa)가 다양한 지원
    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체나 창업팀에게 필요한 자원 제공
    -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도시 내 일자리 창출
    -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
- 대표적 지원 사업 사례
  - 지역 주민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위주
  - 쿠폴리스(Coopolis)
    - 옛 방직공장인 ‘칸 바뜨요’(Can Batllo)의 재생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민 협동조합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기업 지원 기구
    - 공공과 주민이 협력해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경제적기업 지원에 특화된 기구로 운영할 계획
  - 비씨허브(BiciHub)
    - 1987년 도시 내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모임인 비씨클롯(Biciclòt)이 협동조합으로 성장

-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, 자전거 수리와 자전거 여행 인솔 등 다양한 활동
- 최근 ‘바르셀로나 협동조합 추진계획’의 지원으로 역할이 확대되었으며,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혁신지구인 22@지구의 중심지로 이전할 예정
- 자전거에 관한 각종 창업과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
- 칸 깔로파(Can Calopa)
  - 칸 깔로파 지역의 올리베라(L’Olivera)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농업 프로젝트로, 3만 m<sup>2</sup>의 농지에서 포도를 재배해 와인을 제조
  - 사회경제적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와 노동의 통합을 추구



그림. (좌)자전거를 수리하는 비씨클랏 회원

그림. (우)올리베라 협동조합의 포도농장

<http://www.barcelonactiva.cat/barcelonactiva/es/novedades-y-prensa/novetats/2016/11/18/noticia122294.jsp>

<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treballieconomia/es/noticia/el-centro-somos-las-personas-y-nuestro-valor-es-el-trabajo>

<http://bcn.coop/>

<https://www.laciuatinvisible.coop/intervencio/coopolis/>

<https://www.canbatllo.org>

<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treballieconomia/es/noticia/collserola-un-espacio-clave-para-fomentar-la-economia-social-y-solidaria>

진광선 통신원, sunnyice@hanmail.net

## 사회·복지

### 16~25세 청년 200여 명에 관광지 도우미 일자리 제공

프랑스 파리市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市는 청년 실업률을 낮출 목적으로 시행 중인 ‘공공서비스’(Service Civique) 정책의 하나로 만 16~25세 청년 200여 명을 관광지 도우미로 고용하고 월 28시간 근무에 577유로(75만 원)의 급료를 지급
- 배경: 공공서비스 정책
  -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익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실업 상태의 청년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으로, 관광지 도우미도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하나
  - 만 16~25세(장애인은 만 30세까지)의 청년이 대상
    - 프랑스인이 아니어도 EU 회원국의 청년이나 프랑스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이면 다른 자격조건 없이 참여 가능
  - 공익에 도움이 되는 40종의 활동이 공공서비스 일자리로 제공
    - 교육·문화·복지·환경·시민 등의 영역에서 봉사에 가까운 활동을 수행
    - 직장·인턴십·공무원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음
    - 6~9개월간 근무가 가능하며 월 최대 28시간 근무에 577유로(75만 원)를 파리시의 재원으로 지급
  - 실업 상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이후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역할
    -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원하는 직업에 관한 체험과 교육(면접 준비, 일자리 탐색, 실무 경험 쌓기 등) 기회를 제공
- 관광지 도우미 주요 내용
  - 파리 시의회와 프랑스 관광청 등이 협력해 설립한 단체 ‘위니-시테’(Unis-Cité)가 운영
  - 200여 명의 청년이 파리의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에게 특별한 안내를 제공
    - 노트르담 성당, 개선문, 몽마르트르 언덕, 에펠탑 등 파리의 주요 관광지 근처에서 관광지 도우미 조끼와 모자를 쓰고 활동

- 관광객은 쉽게 관광지 도우미를 만날 수 있고, 도우미가 먼저 관광객에게 다가가 봉사하는 때도 다수
- 관광객과 함께 다니며 기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관광경험을 제공
  - 관광지 도우미는 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, 지역 주민이 직접 제공하는 일종의 테마 관광이 가능
  - 자율적으로 관광 코스를 만들어 안내
  - 파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아 주거나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등 재미있는 관광경험을 제공

<https://www.paris.fr/actualites/les-volontaires-de-paris-au-service-des-touristes-4994>

<https://www.paris.fr/servicecivique>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## 환경·안전

### 담배꽂초, 퇴비·플라스틱 자재로 재활용

호주 멜버른市 / 환경·안전

- 호주 멜버른市는 도심 지역 쓰레기의 76.6%를 차지하는 담배꽂초가 일으키는 환경적·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꽂초를 퇴비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특수 제작한 수거용 쓰레기통 367개를 시내에 설치
- 배경
  - 담배꽂초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
    - 담배꽂초는 호주 전역에서 연간 320억 개가 버려지고, 도심 쓰레기의 76.6%를 차지
  -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의 재정부담 문제가 제기
    - 그냥 버려지는 담배꽂초 대부분은 보도나 배수로에 쌓이고, 속에 든 유해 물질이 주변 강이나 만으로 유입
    - 담배꽂초는 완전분해에 12년 이상이 걸리고, 물고기나 새가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
    - 호주 전체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0억 호주달러(9천억 원), 멜버른시는 연간 1,300만 호주달러(116억 4천만 원)
  - 버려지는 담배꽂초가 도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호주는 지난 2014년 전 세계 9번째로 담배꽂초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도입
    - 멜버른시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캐나다베이(Canada Bay)시에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로 담배꽂초 재활용 사업을 시행
- 주요 내용
  - 효과적인 담배꽂초 수거를 위해 전용 쓰레기통 설치
    - 시는 2016년에 시범사업으로 17개의 담배꽂초 수거전용 쓰레기통을 도심 지역에 설치
    - 전용 쓰레기통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자 총 367개로 증설하고 매주 20만여 개의 담배꽂초를 수거 중



- 회사나 가정에서 직접 수거한 담배꽂초는 무료 우편으로 발송 가능
  - 만 19세 이상 시민은 재활용기업 홈페이지에서 무료 우편표시를 다운로드 가능



그림. 멜버른 시내에 설치된 담배꽂초 수거 쓰레기통

- 담배꽂초 수거는 인바이어로폴스(Enviropoles)사와, 수거된 담배꽂초의 재활용은 테라사이클(TerraCycle)사와 외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 중
- 수거된 담배꽂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재활용
  - 생분해가 가능한 종이와 담뱃잎 부분은 분리 후 퇴비나 화학비료로 변환해 비농업적인 용도로(골프장 등) 사용
  - 담배 필터는 분리 후 용해하여 플라스틱 재료와 혼합
  - 약 2천 개의 담배꽂초로 플라스틱 1kg을 제조
- 재원 및 운영체계
  - 주정부의 ‘쓰레기 투기 방지 프로그램’(Litter Hotspots Program)에서 재정 지원
    -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지방정부·기업·지역사회의 노력을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, 쓰레기 투기 빈발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수립
    - 멜버른시는 야라(Yarra)강(江)과 포트필립(Port Phillip)만(灣)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음

<http://www.melbourne.vic.gov.au/news-and-media/Pages/cigarette-butts-recycled-into-plastic-products.aspx>

<https://www.mwrrg.vic.gov.au/projects/litter-hotspots-program/>

정용문 통신원, junraphael@gmail.com

## 도시계획·주택

### 역사적 고건축물, 커뮤니티 레스토랑으로 재탄생

영국 런던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영국 런던市는 총 150만 파운드(22억 원)를 투자해 16세기 말에 지어진 고(古)건축물 사우스올 매너 하우스(Southall Manor House)를 현대적 레스토랑으로 재생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겸 지역 대학생의 요식업 진출을 돕는 훈련의 장으로 사용할 예정
- 배경
  - 역사성과 희소성이 있는 16세기 말의 건축물이지만 최근까지 미활용
    - 사우스올 매너 하우스는 영국 내 얼마 남지 않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(1558~1603)의 건축물이지만 최근까지 활용처를 찾지 못해 비어있는 상태
    - 매너 하우스는 영주관(領主館)으로 알려져 있으며, 주로 중세시대 봉건영주가 영지관리를 위해 지은 건축물
  - 최근 시정부는 이 역사적 고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개조하여 지역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
    - 커뮤니티 레스토랑으로 개조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랜드마크 조성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



그림. 사우스올 매너 하우스 전경

- 주요 내용
  - 전문가의 주도로 현대식 전문 레스토랑을 설립
    - 실무 책임자인 제이미 그레인저 스미스(Jamie Grainger Smith)는 영국 유명 요리사인 제이미 올리버(Jamie Oliver)의 15번째 레스토랑 창업을 주도하는 등 많은 경력과 실력을 겸비
    - 지역 대학의 학생을 고용해 요식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훈련 기회 제공
  - 부분 증축으로 레스토랑 외에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·전시·이벤트·미팅룸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
  - 일링(Ealing)자치구의 지원금에 런던시의 ‘도시 재생 펀드’ 지원금 77만 파운드(11억 3천만 원)를 더해 총 150만 파운드(22억 2천만 원)를 지원
- 재생 사업의 의미
  - 크게 사람(People)과 장소(Place)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
    - 사람의 관점에서는 지역의 숙련된 일꾼을 고용하고, 학생들에게는 요식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
    - 장기적으로 관련 인력 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
    - 장소의 관점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고건축물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고, 지역을 대표하는 허브(hub)가 되기를 기대
  - 다수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,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방문객을 유치해 사우스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

<https://www.london.gov.uk//city-hall-blog/cooking-new-skills-southall>

<http://www.southallmanorhouse.co.uk/>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## 질 좋은 주택 건설 등 차세대 주택정책 전략 발표

영국 버밍엄시 / 도시계획·주택

- 영국 버밍엄시는 지난 7월 5일 ‘질 좋은 주택 건설, 멋진 공간 창출, 버밍엄이 주도합니다’라는 표어와 함께 차세대 주택정책 전략을 발표하고 민간주택 공급확대와 시의 주택 건설 역량 강화 및 사회주택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
- 목적
  -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노숙자를 근절
  - 기존 주택의 질을 높이고 주택관리 서비스를 향상
- 6가지 핵심 목표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
  - 1. 주택공급을 위해 인근 지역과 협력
    - 버밍엄시만이 아닌 중서부지역 전체의 주택 수급 현황을 파악
    - 거주지와 출퇴근 도로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확인
    - 지방자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근 지방정부 등과 파트너십 체결
  - 2. 민간 개발업자의 주택공급을 독려
    - 민간 개발업자의 사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시가 신규 주택의 일부를 사전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지원
    - 신규 주택공급을 위해 양질의 공유지(公有地)와 사유지(私有地)를 확보
    - 중소 규모의 개발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
  - 3. 시가 직접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
    - 땅주인의 승낙 절차 없이 강제로 땅을 살 수 있는 권한(Compulsory Purchases Order powers)을 강화하는 등 시의 영향력 확대
    -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신규주택 건설 지원금(New Homes Bonus)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주택사업을 진행
  - 4. 노숙자문제를 근절
    - 버밍엄시 홈리스 태스크포스(City Homeless Taskforce)팀을 이용하여 노숙자가 쉽게 민간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특히 어린 노숙자들이 적절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

- 5. 사회주택(Social housing) 입주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제시
  - 모든 시민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을 모색
  - 사회주택 세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
  - 사회주택의 유지·관리·치안 서비스를 강화
  - 3년간 1억 6,900만 파운드(2,500억 원)를 투자해 사회주택의 질을 향상
- 6. 지역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력
  -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지방정부, 중앙정부, 사회주택 소유자 등과 함께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협력

## Building great homes creating great places

**Birmingham leads the way**



그림. 버밍엄시의 새로운 주택정책 표어

[https://www.birmingham.gov.uk/news/article/95/building\\_great\\_homes\\_creating\\_great\\_places\\_%E2%80%93\\_birmingham\\_leads\\_the\\_way](https://www.birmingham.gov.uk/news/article/95/building_great_homes_creating_great_places_%E2%80%93_birmingham_leads_the_way)

<http://birminghamnewsroom.com/wp-content/uploads/2017/07/Building-great-homes-creating-great-places-pamphlet.pdf>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